

칠레 과수산업 실태 보고서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 조정실

탁명구 실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시작

지난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당시 한·칠레 양국 정상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99년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왔고, 현재 10여개국 이상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칠레는 금년부터 7%인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나라와도 협상을 체결하면 할수록 유리한 반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국내 산업분야에 미칠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협상에 뛰어 들었다는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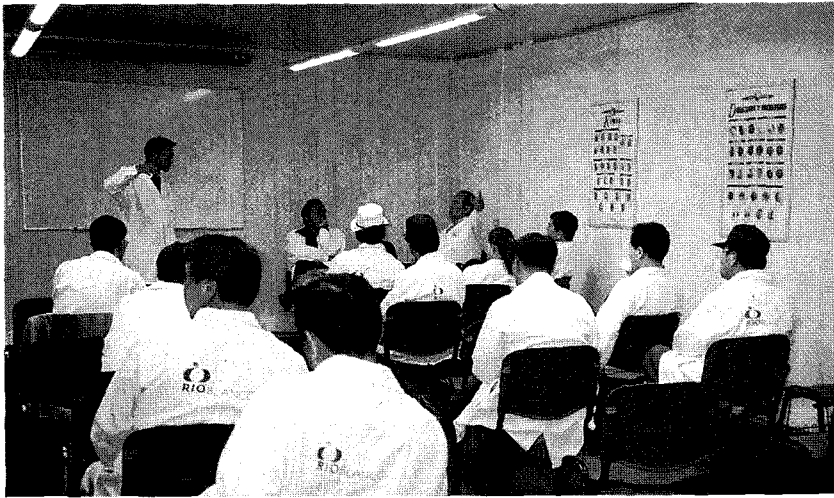
당초 정부가 한·칠레 FTA 체결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긍정적인 효과들은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공론화되면서 각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과장되거나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연내에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현 정부가 농업 포기를 위한 시발점으로 한·칠레 FTA 체결을 들고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 농업을 정확하게 실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 실무자, 농협조합장, 학계 교수, 전문지 기자 등으로 칠레 현지 농업조사단이 구성되게 된 것이다.

칠레 농업 개황

최근 FTA 논의 관계로 주목받고 있는 칠레는 지형 및 기후상으로 매우 특징적인 국가이다.

동서의 폭은 90km~375km에 불과하지만 남북의 길이가 무려 4,270km에 달해 북부는 사막과 아열대기후, 중부에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남부에서는 남극까지 이르러 춥고 장마진 기후 모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인구는 1,545만명이며, 1인당 소득은 4,145불 정도이다. 1999년 당시 농업부문 생산액은 4,600억 페소로 국내총생산액 8조 페소의 5.7%에 불과하지만 대



◀ Rio Blanco 농장을 방문, 현지 관계자로부터 농장 현안 설명을 듣고 있다.

외무역에서 농업부문의 수출액은 46억 달러에 달해 총 수출액의 29.7%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칠레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액은 1997년 신선포도가 6억36백만 달러로 1위, 사과가 2억13백만 달러로 2위, 그리고 배, 키위, 자두가 각각 86백만 달러, 79백만 달러 및 73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칠레 과수산업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커 포도의 경우 1998년 현재 세계 수출물량의 24%를 점유하여 1위 기록하고 있으며, 자두는 세계 수출물량의 17%를 수출하여 2위, 키위, 아보가도, 사과 배의 수출 물량은 전세계 수출국 중 3위, 복숭아, 체리는 8%와 5%를 점유해 각각 5,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칠레의 과수산업

비행기로만 꼬박 28시간을 날아간 끝에 칠레 산티아고시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 새벽 7시경이었다. 며칠전 이곳에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과연 칠레 농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수량

으로 어떻게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먼저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은 조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금방 풀렸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칠레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데스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생성된 영양분이 풍부한 빙하수를 관개수로를 이용하여 연중으로 인근 과수농장에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수농장이 집중된 칠레 중부지역의 경우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 농장의 대다수는 안데스산맥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다. 방문단이 찾아간 곳도 최대의 포도 생산지인 Aconcagua계곡의 San Felipe지역에 위치한 Rio Blanco농장이었다.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농장으로 향하면서 우리 일행이 본 것은 온통 녹색물결로 출렁이는 과수농장이었다. 그 엄청난 면적과 규모에 기가 죽은 우리는 목적지인 Rio Blanco농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의 과수산업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포도 수출량에서 칠레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농장(사실은 기업이다)이 직영 재배하는 면적은 약 3,000여ha로 연간 600만 상자(8.2kg)를 수출한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이 농장이 소유한 여러 농장 중의 하나로 약 200ha 규모에서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는 레드글로브라는 품종의 포도를 막 수확을 하고 있었다. 농장에서 직접 따서 맛을 확인했던 일행 모두의 공통된 의견은 당도와 맛에서 국내 최고급 포도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농장을 뒤로 하고, 농장내에 위치한 가공공장에서 갓 수확된 포도가 예냉, 선별, 포장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수출용 대형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과정 모두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약 3시간여 동안 농장 주인의 친절 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칠레 과수산업의 현 주소와 저력을 확인한 우리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힘없이 농장 주인의 배웅을 받고 버스에 오를 수 밖에 없었으며, 산티아고로 돌아가는 동안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받은 충격에서 헤어날지 못했다.

칠레 농산물수출업자연합회(ASOEX)와 칠레 과실수출업계의 3위인 델쿠르토(DEL CURTO)사를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칠레인이 운영하고 있는 Rio Blanco농장처럼 칠레내 전체 농장 중에서 약 2%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형 농장들이 칠레 전체 과수면적의 77% 정도나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직영농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물론 인근의 중소규모 농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생산·가공·수출 전 분야에 걸쳐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춘 일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델쿠르토(DEL CURTO)사의 경우 칠레 과수 수출업계에서 상위 5개사 중 유일하게 순수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직영농장만도 5,000ha 규모나 되며,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에 포도, 사과, 배, 자두, 복숭아, 키위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중의



총 3,200ha로 칠레에서 포도수출 3위인 Rio Blanco농장 전경

하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이들 농장(기업)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409만ha에 이르나 현재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면적은 약 21만ha에 불과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최단기일내에 재배면적 확대가 가능하며, 그 준비도 이미 완료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울러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미 개방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은 칠레의 경우 Dole Chile, Unifrutti, Delmote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칠레 내 과수 생산 및 수출 분야를 장악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어떻게 보면 한·칠레 FTA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이들 다국적 기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

칠레 주재 상사주재원들도 FTA 체결에 따른 효과에 시큰둥한 반응

1973년 Pinochet 장군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하면서 개방화 정책을 도입한 칠레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일반관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그 수준을 낮춰왔는데, 2002년에는 일반관세율을 7%로, 2003년에는 6%대로 인하할 계획이며, 향후 이러한 인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칠레와 별도의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처럼 알아서 먼저 FTA를 제안하고 있으니 칠레 정부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단이 만나본 칠레측의 대다수 인사들은 칠레가 개방화추세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모범국가인데 반해 유독 한국은 이런 추

세에 역행하고 폐쇄적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조사단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대사관의 주선으로 떠나면 남미의 수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사 주재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다. 처음에는 서로 관심분야가 틀리고, 우리 조사단의 구성 인사가 화려(?)하다보니 서먹서먹하였으나 술이 몇 순배 들어가고,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형성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만나본 상사주재원들은 칠레 인구가 1,500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이 4천불에 불과한 상태에서 현재 칠레 국민의 구매력을 높게 감안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칠레 양자통상국장을 만나다

한편 이번 방문기간 중에 뜻밖에 우리는 칠레측 FTA 협상대표인 마리오 마투스 양자통상국장을 직접 만나는 행운을 잡았다. 칠레 외무부 통상진흥국(Prochile)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조사단 앞에 나타난 그는 지난 2월말 LA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협상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전 안에 비해 많이 진전은 되었으나 여전히 사과와 배의 양허 조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하반기에 한국에서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한 농민단체의 만형격인 농단협의 김인식 사무총장은 전체 조사단을 대표하여 약 20분에 걸쳐 강경한 어조로 칠레 농업과 우리 농업의 차이점을 피력하고, 한·칠레 FTA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사실 그동안 칠레에서 느낀 점이지만 만나본 칠레의 농업관련 기관이나 수출관계자 모두 우리 농



◀ 칠레 외무부 산하 통상진흥국 (prochile)을 방문, 양자 통상국장과의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민들이 왜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연내 FTA 체결이 어렵지 않겠냐고 되묻기도 하였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FTA 체결에 더욱 관심있는 칠레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연내에 반드시 FTA를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초 양허안 수준에서 대폭적으로 양보하면서까지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곳 현지에서 만나본 칠레 과수수출업체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양허안이 기 제안된 바 있는 내용보다는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사과, 배 등 우리측의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 칠레측의 요구안과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가 만나본 그들은 우리나라와의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오히려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나 미국과의 FTA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리 정부

짧은 기간의 칠레 방문이었지만 나름대로 칠레 과수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FTA에 대한 칠레측의 입장과 전략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칠레와의 FTA는 국가간 통상 협정의 필요충분조건인 산업간 상호보완성이 결여된 채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칠레는 국내 농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농업경쟁력을 갖춘 나라로서 우리나라에게 별다른 이익을 제공할 여지가 없고, 상호보완성이 결여된 협상 파트너라는 것이 이번 조사단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울러 조사단이 현지에서 느낀 점은 칠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대해 안되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국 우리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문제였다. 우리 정부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여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농연**